

“꽁꽁” 광주는 공사 중... 도심 곳곳 교통지옥 “땡땡”

지하철·도로공사에 체증 심각... 주말 빙글돌고대려 거대한 주차장으로 차선 수시로 바뀌어 혼란·사고 우려... 포트홀 많아 운전자들 스트레스 출퇴근·주말 차량 혼잡 시간대 피하는 등 공사 일정 조율 필요 지적

주말인 17일 정오께 광주시 서구 빙글돌고대려 거대한 주차장이 됐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상무지구, 평동산단으로 가는 차량 수백대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300m 가량 길게 늘어섰다. 편도 4차로 중 2개 차로를 막고 이뤄진 도로공사에 주말 나들이 차량까지 몰리면서 도로는 더 혼잡했다. “지하철 공사에다 온갖 도로 공사가 곳곳에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동구 필문대로 조선대 앞 도로는 차선 흔적들로 가득한 도화지나 다름없다. 지하철 공사 구간이 자주 바뀌면서 빗어진 일지미나 흔적이 남다보니 운전자들에겐 혼란스럽기만 하다.

직장인 정인철(39)씨는 “지하철 공사 때문에 어제는 2차선, 오늘은 1차선 등으로 차선이 자주 바뀌는데 그나마 차선 흔적도 남아있어 혼란스럽고 안내판도 눈에 띄지 않으니 지나다보니 때마다 사고날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광주 도심 곳곳이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언제 끝날 지 모를 지하철 공사, 하수관거 공사, 시설물 보수공사, 도로포장, 포트홀 메우기 등 온갖 도로 공사가 맞물리다보니 교통 체증이 끊이지 않고 있어왔다.

각종 도로·지하철 공사로 차선이 수시로 바뀌는 데도 공사 구간 변경 사실을 안내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보니 불안해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공사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 불만이 쏟아지면서 교통당국이 온라인에 공지하던 공사 내용·구간도 슬쩍 비공개 방침으로 바뀌버렸을 정도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차량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 차량이 많은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 일정 등을 조율해 추진하는 당국의 세심한 행정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광주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에만 광주 17개 도로 구간에서 1~2개 차선을 가로막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 3개 구간에서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이뤄졌고 시설물 보수, 하수관거 설

치, 포트홀 메우기 공사 등도 곳곳에서 이뤄졌다. 시설물 보수 공사는 광산구 송정공원역, 하남대로 아담마을 입구 등에서 이뤄졌다.

평일 뿐 아니라 토요일인 지난 17일에도 16곳, 주말인 18일에도 13곳에서 무더기 공사로 도로가 파헤쳐졌다.

남구 주월교차로 무등시장 인근에서 2~3차로를 막고 진행된 하수관거 공사로 이 일대 차량 정체가 불가피했고 18일에도 광주 도심 곳곳에서 도로를 막고 이뤄진 공사로 시민들 불편이 잇따랐다. 여기에 포트홀 민원도 하루 평균 100건이 넘게 쏟아지면서 도심 도로 곳곳은 공사장으로 바뀐 지 오래다. 사고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 구간이 바뀌면서 기존 차선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 급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가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과의 다툼·시비도 목격되는 상황이다. 공사로 차선마저 좁은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으니 교통정체가 일상화된 지 오래다.

광주시 서방 사거리·중흥 삼거리 방면 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지만 지하철 공사로 2개 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마저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1개 차로를 점령하면서 사실상 1개 차로만 이용해야 하



지난 19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금호초교 인근 도로에서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통제하고 도시가상 배관 공사가 진행됐다.

는 실정이다.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및 광주역 인근 도로도 지하철 공사로 일부 차로가 통제됐는데 그나마 통행이 가능한 차로도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통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애인 활동 지원 대책 세우주소”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2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지중화 공사 현장 굴삭기에 치여 노동자 숨져

곡성경찰, 운전자 입건 조사

전선 지중화 공사 현장에서 현장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굴삭기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곡성경찰은 20일 전선 지중화 공사 현장 관계자

를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운전자 A(43)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50분께 곡성군 곡면 전선 매립 작업 과정에서 공사 감리를 맡은

현장 관계자 B(71)씨를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굴삭기로 후진을 하다 현장에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광주노동청은 공사현장감독 등을 상대로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동차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차 정면충돌 사망케한 남편 징역 20년 선고

해남경찰, 사고기록장치 분석 복원 충돌 전 가속·핸들 각도 결정적 증거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은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차량을 세우려고 했을 뿐 고의로 들이받은 게 아니다”고 맞섰다.

하지만 차량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는 사고 당시의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부(재판장 조현호)는 이같은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마주오던 부인 B(47)씨의 모닝 승용차와 정면 충돌해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일반교통방해죄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혼 소송중이었다. 남편 A씨는 121km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중앙선을 침범, 부인의 차량 운전석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였다. A씨는 ‘아내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량을 멈춰세우려다가 빗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해남경찰이 분석해 법원에 제출한 쏘렌토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는 A씨의 당시 운전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EDR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사고 전후 5초 동안의 페달 조작이나 엔진 상태, 핸들 조향 각도 등을 실시간 기록하는 등 15개 필수 항목과 30개 추가항목을 담고 있다.

충돌로 에어백이 작동한 경우 EDR 데이터가 영구 저장되고 에어백이 퍼지지 않더라도 0.15초 이내로 진행 방향의 속도변화 크기가 시속 8km 이상이면 기록된다. 국내의 대부분의 신차(현대·기아차 경우 차종에 따라 2009년식 모델부터)에는 장착된 상태다.

A씨의 차량 EDR은 충돌 1초 전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은 기록을 담고 있었다.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멈춰세울 의도였다면 자신의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으로는 보기 힘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좌측으로 핸들을 꺾은 점, 충돌 0.5초 전 가속페달 변위량이 99%, 조향핸들 각도가 35도 바뀌었다는 기록도 확인됐다.

충돌 0.5초 전부터 브레이크에서 발을 뺀고 진행방향 후측으로 핸들을 틀어 시속 121km의 속도로 운전한 기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A씨가 아내의 차량을 발견하고 오히려 가속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점까지 반영,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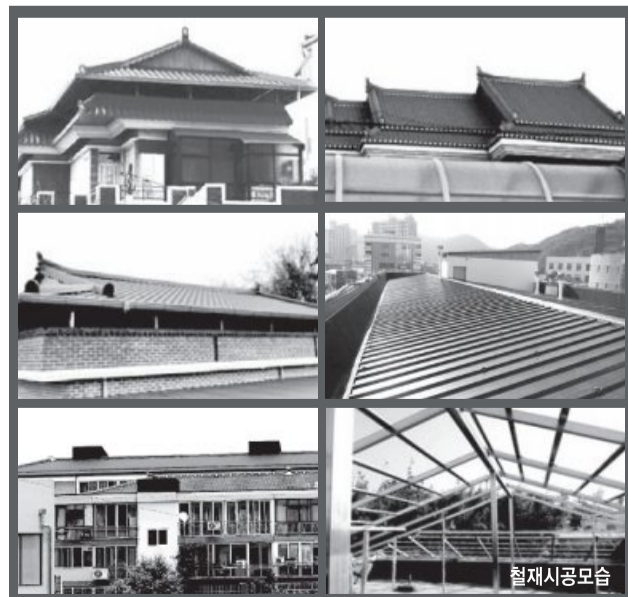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